

일하시는 하나님

홍경환 목사(화평교구 담당, 태국 선교사로 7월 출국 예정)



어느 토요일 오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가 베란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엄마, 새싹이 태어났어요.” 얼마 전 자기 언니랑 하나씩 씨앗을 심어놓은 조그만 화분이었습니다. 화분에 돌아난 싹을 보고 ‘새싹이 태어났다’면서 즐겁게 소리치는 아이의 말에 아내와 함께 웃으면서 가보니 정말 조그맣고 예쁜 새싹 하나가 돌아나 있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그치? 씨앗이 새싹이 되었네.” 마치 새 식구를 맞은 양 기뻐하며 내려다보는 창문 밖에는 어느덧 새 생명의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만물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4월 초에 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선교사 비자 수속을 위한 초청장을 받기 위해 태국 교단 총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라면 3개월 동안은 비자가 필요 없지만 그곳에 살면서 선교사로 일하려면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비자를 갱신하여야 연장됩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선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98%가 불교도들이고 국왕이 이 나라 불교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 사역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교전략상 디아코니아(기독교 사회봉사) 선교사역은 특히 태국에서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고아원, 탁아소, 미혼모 시설, 병원 사역, 호스피스 사역들과 컴퓨터, 음악, 태권도, 한글 교육과 같은 문화선교 사역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인 태국은, 수도인 방콕에만 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전체가 8, 9백만의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주변의 여러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번도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큰 자부심입니다.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가장 번영된 나라를 이루고 있기에, 현 ‘푸미폰’ 라마 9세 국왕은 역대 국왕 중에서 ‘Great King’으로 불리우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태국 지도를 놓고보면, 북쪽으로는 비교적 기독교인들이 많은 태국의 제 2도시 ‘치앙마이’가 있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영향으로 모슬렘이 비교적 강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남부 제일의 도시 ‘푸켓’이 있습니다. 각각 비행기로 방콕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태국에는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타이족’ 이외에도 북쪽에는 ‘카렌족’, ‘라후족’, ‘아카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산족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독특하게 유지한 채 산에서 살고 있는데(이들을 위해 각 부족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긴 해안을 중심으로 물고기와 소라, 조개 등을 잡아 팔면서 살아가는 ‘라와이족’ 같은 바다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국 선교의 역사가 2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1956년 11월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시작한 곳도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0.2%만이 기독교인으로 선교의 열매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태국에서 선교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1년간 태국 치앙마이에 단기간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태국 선교는 참 힘들구나’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입당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뿌려 놓은 씨앗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새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2면으로 →



함께함은: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6호(격월간)

발행일 2002년 5월 5일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 교내)

tel. 02-416-5181~2 (교회 사무실)

02-416-2047~8 (교역자실)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례

1-2

목회자 칼럼 / 홍경환 목사

2

시론 / 최창섭 장로

3

섬김의 삶 / 손천숙 권사

4

간증 / 권오승 장로

교회소식

5

기고 / 임혜정

5-6

기고 / 김병철 B

6

소식 / 신영숙 집사

6-7

독후감 / 손청진

7

신앙클리닉

성경퍼즐

8

시 / 임병숙 집사

오심(誤審)과 감정대응

최창섭 장로(사랑 1구역)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듯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공정한 판정이 뒤따라야 할 스포츠 세계도 가끔은 거친 플레이와 불공정한 판정 시비로 얼룩지기도 한다.

지난 2월 25일에 끝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대회도 그러한 대회 가운데 하나였다. 얼마나 텃세가 심했으면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번 대회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이후 자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이벤트로 전락시킨 대회였다고 혹평할 정도였다.

그 불똥은 우리에게도 튀어서 금메달 기대주 김동성 선수가 1500m 결승 경기에서 당당히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으나 호주 주심은 김선수에게 '크로스 트랙' (뒤따르는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느린 화면으로 보면 김동성 선수가 결승선을 약 50m 정도 남겨두고 찰나에 왼발을 두 스텝 했으며, 주심은 이 행동이 미국의 오노 선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임) 반칙을 적용해 2위로 들어온 오노 선수에게 금메달을 넘겨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눈뜨고 금메달을 빼앗긴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한목소리로 호주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과 미국의 횡포를 규탄하기 시작했고 TV를 보던 모든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울분을 터뜨렸으며, 이 울분은 급기야 반미 감정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더 냉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 경기에 한해서는 미국이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오노가 평소에도 경기 매너가 좋지 않고 이 날도 심판을 속이는 동작(김선수가 두 스텝한 것과 거의 동시에 오노는 중심을 잃은 듯 상체를 일으켰었음)이 있었으며, 이 동작에 주심이 속아 오판을 했다면 비난의 대상은 주심과 오노가 되어야지 오노가 미국 사람

이라고 해서 미국까지 규탄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며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노출이라는 생각이다.

경기에서 주심의 오판은 심심찮게 있고 이것으로 인해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또 국가 대항전이나 프로 경기와 같이 지역 연고가 있는 시합에서는 텃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 혹시 그날 경기에 알게 모르게 텃세가 작용해 그와같이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 내려졌다 해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 올림픽 때도 그와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 때 우리나라의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선수의 대결이 끝난 후 2명의 심판은 60 : 56으로 로이 존스의 우세를, 그리고 다른 2명의 심판은 59 : 58로 박시현 선수를 우세하다고 채점했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우간다 주심이 59 : 59 동점을 매기고 박시현 선수가 우세했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음날 우리 언론들조차 없어도 될 금메달 하나를 더 따기 위해 주최국 체면이 송두리째 깎였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린다. 국민 누구나 다 16강 진입을 원하지만 16강 진입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의 실력이 포르투갈·미국·폴란드와 싸워서 한 나라라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인지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훈련할 때 상대방도 우리 못지 않은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스포츠 세계에는 텃세 말고도 '운 7, 기 3'이라는 말도 있다. 즉 운이 7만큼만 따라준다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피나는 훈련과 텃세, 거기에 운까지 따라준다면 그렇게 열망하는 16강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경기라 해도 심판 판정에 대해, 세상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감정 대응은 곤란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 판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오판한 심판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해 언론에 부화뇌동 하기보다는 관중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안목도 길렀으면 좋겠다.

← 1면에서

그 동안 태국 곳곳에서 여러 일꾼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 날 것입니다. 분명코 죽지 않고 살아나 소망을 가지고 뿌렸던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가지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내고 보냄을 받아 함께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일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바울처럼 전하고 아볼로처럼 가르치면 자라게 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장 6절)"

5월에, 청소년을 바라며

손천숙 권사(자비 6구역)



“선생님, 저는 어린이구요, 우리 오빠는 청소년이에요.” “그래? 오빠가 몇 학년인데?” “저는 2학년, 오빠는 4학년인데 11살이에요.”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 끼어든다.

“선생님, 청소년은 12살부터 15살까지예요.” “아냐, 11살부터 19살까지야. 어린이랑 어른하고 중간이야.” “선생님, 청소년 때는요 키가 많이 커요. 그리고 몸도 많이 커져요.” “선생님, 생각도 커져요.” “선생님, 청소년은 불량 학생이 많아요.” “선생님, 청소년은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요.” “우리 오빠는 학원 갔다오다가 중학생한테 돈도 뺏겼어요.”

며칠 전 하교시간, 내 손목을 끌어당기며 한 마디씩 거드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다. 청소년!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 교회 도착 바로 전에 A중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보아왔던 교문 위의 현수막을 생각했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커다란 글씨가 내 가슴에 다가선다.

200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 연유로 금년,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금연운동 추진계획’이 세워지고 ‘학교 금연운동 추진기구’가 조직되었다. 학생 흡연율의 증가와 흡연 연령의 저하로 인한 심각한 해악 및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며,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30~40여 년 전에는, 어른들에게 고급 담배 한 갑이라도 사다드리면 것이 좋은 선물이었요, 호도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면 날씬해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성들에게는 흡연을 여권신장의 척도로 생각하게 하는 등 담배 회사들이 만들어 낸 왜곡된 이미지에 잘못 길들여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교회학교 중등부에 몸담은 지 열한 해를 훌쩍 넘겼다. 그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며, 앞장서서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특별한 감회에 젖게 한다. 이렇듯 대다수의 우리 아이들은 건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흡연문제가 어찌 교회 밖만의 문제이겠는가?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000여 종이나 되는 많은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3 가지 성분은 ① 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담배진(타르)은 맹독성이 있어 옛날에는 산에서 뱀을 퇴치하거나 작은 동물을 죽이는 데에 이용하

기도 하였다. ②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은 40mg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르는데, 담배 한 개비에 1mg 정도 함유되어 있다. ③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키는 무연탄 냄새인 일산화탄소(CO), 등이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독성 발암물질은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확률이 높아 지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12월 서울 시내 1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6명 중 1명 꼴로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으로 야기되는 질병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대동맥류, 말초혈관 질환.

* 호흡기질환: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 기타 질병: 소화성궤양, 저체중아(低體重兒), 기타 태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질병.

또한 흡연 청소년은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주름살이 빨리 생긴다. 흡연을 하면 악취를 풍기고 잇몸이 잘 상한다. 흡연 청소년은 신경질적이고 우울한 경우가 많으며 쉽게 피로하고 뼈 속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렇듯 담배가 여러 가지로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수많은 담배 광고나 TV, 영화 등에서의 멋있게 미화된 흡연 장면이나 주위 어른들의 흡연 때문에 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러나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자기 또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흡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친구들의 담배 권유를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을 익힌다거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더불어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와 본을 보이는 생활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몸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쉬 병들게 하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겠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 22~24)”

예수 믿고서 받은 복

권오승 장로(충성 7구역)



저는 여섯 살 때부터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에 나가기 시작해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과학에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에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방황은 무려 20년 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에도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에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아내 덕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 기간은 정말로 아까운 허송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1991년 초에 고교 선배의 소개로 '주님의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해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 참가하여 팀장으로 봉사하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상당히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곰곰이 따져보면 저는 예수 믿고서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하여 오랫동안 방황했으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나 이웃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는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만 읽으면 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았던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부부간, 부자간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며, 형제들이 모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수가 아니라 진리를 깨우쳐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참된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또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사를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저의 처지에 계신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요?" 라고 여쭙어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의 생활의 내용이 달라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범위나 수준도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 받으면, 명함의 교환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뒤에, 몇 마디의 추가적인 대화나 질문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출신인지, 누구누구를 아는지 등과 같은 세속적인 질문을 통하여 가까이에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분의 얼굴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태도가 거만한지 겸손한지, 인상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등과 같은 영적인 정보를 통하여,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한 수 배워야 할 분인지, 섬기고 도와야 할 분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해 나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직장에서는 교수로서,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크리스천 법학자로서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론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법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인 아시아공동체(ASIAN UNION)를 형성해 나가는 일에 적극 동참해 나가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이 글은 지난 3월 23일 충성교구 주회로 모인 '남편초정의 밤'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교회소식

1. 5월 5일 가정주일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2. 5월 22일 수요일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교육은 4월 교육에 이어 5월 5일, 12일 오후 1시 제 1집회실에서 계속 있습니다(문의: 김병모 목사).
3. 새 교우반 2기생: 5월 7일(화) 부터 6월 11일(화)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찬양 대연습실, 신청서 제출 바람(문의: 이승렬 목사)
4. 전화 신앙상담(02-416-518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00 ~ 12:00, 오후 1:00 ~ 5:00.

평화의 노래 - 테제에서

임혜정(청년 2부)



2001년 10월 10일 나는 거의 아무 준비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서 부딪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 때부터 막연한 동경 속에 있던 유럽 공동체를 찾아 떠났다. 첫 여행으로 혼자서 아무지게도 러시아 횡단 기차를 타고 유럽에 도착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과의 만남 속으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난 오히려 그때그때 너무나 때에 맞춘 도움의 손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움의 천사 1호, 2호' 하며 마음 속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스위스 라브리, 프랑스 라르쉬 등 공동체에서도 많은 걸 배우며 난 벽난 가슴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냥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그 후 스페인에서 잠시 여행 중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남자 두 명이 나를 목조르고 순간적으로 졸도시킨 후 나의 중요한 작은 가방을 가져가 버렸다. 난 어떤 아저씨의 도움으로 깨어났지만 그때의 공포는 내겐 혼란스러움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그 일 후 테제에서의 시간은 강도와와의 만남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었다.

12월 13일, 내가 막 테제에 도착했을 때 종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기도시작 종인가 보다' 하며 교회로 갔다. 평화롭고 소박하며 조화로운 분위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에 너무 감사했다. 내가 정말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임을 느꼈다. 소박한 십자가 위 예수님 모습이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듯 했다. 무서울 만큼 강한 바람소리, 많은 사람들, 그리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첫 기도 시간의 멜로디는 내게 너무 기쁜 선물이었다. 내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싶었다. '왜 내게?' 하고 묻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은 이유로서가 아닌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난 공포를 공유할 수 있었다. 눈 앞에서 부모가 총살당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아이의 공포. 그 아이가 세상의 평화를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울까? 기도시간에 나를 해친 그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한 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뺏아갈 생각을 한데는 다 그들이 자라는 환경 속의 영향이 있었겠다 싶으니 가련한 마음과 어떤 책임감도 느껴졌다.

12월 19일, 찬양시간이었다. 그냥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평화롭고 눈물이 났다. 세상은 이 찬양이 있는 예배 처처럼 평화롭지 않음을 안다. 내 마음 또한 번덕스럽게 바뀌고 잔잔한 평온함이 아닐 것임을 안다. 하지만 내 어두운 시간, 내 놀린 마음, 내 모든 시간 중에 함께 하였고 평화를 주신 나를 웃게 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저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 미소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제가 언제 마음이 또 바뀌고 언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움에 휩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믿고 평화를 위해 살아갈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 당신이 있는 것처럼.

The kingdom of God is justice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Come and open in us the gate of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안에서의 공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 나라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정의와 평화, 사랑 추상적인 용어로서가 아닌 조금씩이라도 제 삶의 구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게 사랑, 미소, 즐거움을 주신 당신에게 저도 미소를 드릴게요. 당신이 슬퍼함을 외면하지 않고 나눌게요.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심을, 그리고 당신은 선이고 사랑이심을 신뢰함으로 더욱 다가갈게요. 하나님 제게는 왜 그리도 까다로운 스스로의 규정이 많은지요. 왜 그리 생각하고 재고 판단하려는 게 많은지,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고 행동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느끼듯 이 세상 속에서도 느껴가고 싶다. 삶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지만 내게 평화와 자유한 마음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삶을 긍정하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 여기에도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 the Lord is near!

(주님 안에서 나는 감사하리,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 하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라!)

주) 프랑스 부르고뉴 동부에 있는 농촌마을이며, 로제수사가 1940년에 창설한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있는 곳임.

작은 삶에서의 아주 적은 되돌아 봄

김병철 B(회략 9구역)



강도와 도둑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으니 참 딱한 세상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으면만 모르고 또 모르는 체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강도란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적을지라도 발생되면 야단 법석을 떨지만, 도둑은 그 행위나 양이 많을지라도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속이면서 또 속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얼마 전 부잣집 기사가 주인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 잡혀갔다. 주인 왈 "세상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진정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쁜 줄 알면서도 당장의 충동을 억제치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가 있다. 처음에는 조금의 가책을 받다가 이(利)라는 것 때문에 점차 무디어져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는 도둑도 있다. 이들 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쪽이 먼저일는지. 강도는 타의적 일지라도 회개의 기회라도 빨리 올 수도 있으면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한번쯤 비추어 보면 어떨지. 그럼 이제 나에게로 아주 가까이 와 본다. 강도는 배짱이 없어서 감히 실행할 수 있는 위인이 못되겠고. 눈앞의 조그마한 편의나 이(利) 때문에 얼마나 자주, 또 많은 도둑질을 했을까? 나의 일상 생활중 일부인 운전습관에 대해 한번 돌이켜 보자. “바빠서, 처음 길이라 잘 몰라서, 차선을 미처 못봐서…” 등등 스스로의 핑계로 새치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그래서 올바르게 차선을 지키고,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훔쳤을까? 그들에게 심적인 불편함은 또 얼마나 주었던가. 그랬으면서도 자기 앞으로의 끼어들기에는 불만과 미움을 품었었지.

나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저런 도둑질을 얼마나 덜 할 것인가?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만이라도 돌이켜 보면서 그 횡수를 줄여 가리라고 다짐해본다.

삶에서의 참다움이 어디에 웅크리고 숨었기에 이렇게도 나타나기가 어려운지?

소 식

2002년 중등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영숙 집사(온유 8구역, 중등부 총무)



거리에 물오르는 나무들의 부드러운 연둣빛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지난 겨울 중등부에서는 제주 성안교회와의 수련회를 광림수도원에서 성안교회 학생 35명, 교사 17명과 주님의교회 학생 97명, 교사 35명이 참가하여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올 여름수련회는 제주 성안교회 수련원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은 7월 24~27일로 현재 참가 인원을 파악 중입니다. 또한 4월 14일부터 매주 오후 1시~3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성경 공부반과 별도로 ‘중당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성경공부반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중당제자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여 신앙 안에서 헤쳐나가며, 아울러 리더십을 키우는 데 그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쉬지 못하고 학원으로 가야 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시류에 역행하여 주일 오후를 쓰려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경건하기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허브라는 여러 모양의 풀이 있는데 가지를 흔들어 보면 그 향이 각각이나 하나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아이들 또한 각각의 향기와 모습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지체로 자라나기를 저희 교사들은 소망합니다.

독 후 감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손청진(고등부 1학년)



구약은 성경의 사분의 삼(3/4)을 차지하면서도 제일 많이 읽히지 않는 부분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설교에서도 구약보다는 신약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구약이야말로 진실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구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소개하러 오시기 이전의, 즉 구약 시대는 단순히 준비기간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신약만으로는 역시 더욱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신약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또한 구약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나타나신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구약에서의 예언을 통해 몇 백년 전부터 예비되었던 것이라 알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약만 읽을 경우에는 ‘광야의 유목민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구약성경 없이는 그리스도교의 전파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지방적인 종교(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구약 성경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출현이 몇 백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유일신의 존재가 더욱 명확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욥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육체적 고통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계약적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욥은 그들의 시련과 고난의 선배이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선민(善民)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이었고, 욥의 고전적인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는 그의 저서 <최초의 비국교도>라는 책에서 욥기의 유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욥기가 스스로 평범하고 팬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2500년간 무엇인가를 가르쳐 왔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인간은 무지 속에서 방황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그들에게 더 낫다-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의롭다.’

시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이다. 보통 사람들은 시편을 영적 처방전으로 사용한다. ‘절망이 느껴지면 시편 37편을 읽어라.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시편 121편을 읽어라.’ 하지만 시편 중 절망의 음조는 ‘겨울 같이 차갑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시편은 치유의 글

이기도 하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편 51편)' 라고 고백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상한 심령과 뉘우치는 마음뿐이었지만, 이러한 고백이 그를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 다윗은 눈물과 비통함으로 고백했으며, 그의 시편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그외에도 전도서와 신명기,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적혀 있다(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한다(본인도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욱 즐겨본다).

성 경 퍼 즐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로열쇠

1. 모세의 후계자이며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복한 사람(민 13:16)
3.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임(행 7:59, 60)
5.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한 사람(딤후 4:21)
6.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왕에게 패했던 모압의 성읍(민 21:23)
8.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사사(삿 7:1~25)
10. 아굽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장소(창 31:44~53)
11. 노아의 방주가 정박하였던 산(창 8:4)

■ 세로열쇠

1.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붙여준 이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삼하 12:24~25)
2.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도움(행 18:2, 롬 16:3~4)
4. 신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화(마 20:2)
7. 다윗의 후예인 스알디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포로생활 후 제1차 귀환 때의 지도자(스 3:2, 눅 3:27)
8.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출생지(삼상 11:4)
9. 이제 구원하소서(마 21:9)
10. 사울왕의 딸로서 다윗과 혼인함. 다윗을 조롱하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됨(삼상 14:49, 삼하 6:16~23)
12. 스위스에 있는 신앙공동체

성경퍼즐 지난해 정답

- 가로 : 1. 여호와닛시 3. 아굴 5. 고넬료 6. 야고보 8. 에벤에셀 10. 스바 12. 브니엘 14. 브엘세바
- 세로 : 1. 여리고 2. 시드기야 4. 골리앗 7. 보아스 8. 에바브라 9. 셀라 11. 바나바 13. 엘리

■ 정답 보내주시 분

최영숙B(사랑 11구역), 정승아(사랑 7구역), 이원희 님(화평 17구역)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6월 9일까지 정답을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문의 416-5181).

신 앙 클 리 닉

■ 질 문

어느날 성경을 뒤적거리다 전도서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무 생각없이 지냈던 때에는 그런 종류의 말들이 전혀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지만, 제 나이 25살에 예쁜 딸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어설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될 구절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하지만 아직 세상과 많은 사건들을 치르지 못한 저로서는 그 정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지 막막하고 두려운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될 것 같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껏 잠자는 신앙이었나 봅니다.

■ 답 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탐닉하고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추구하고 얻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깨달은 뒤에 그것을 전도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보면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간에 그것에 기쁨을 얻는 것은 잠시이고, 이후에는 또다시 솔로몬의 고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선택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당부 한 일들이 무엇이며, 맡겨주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 땅의 정원에서 영적 정원사가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역할들을 점검하시고 이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임병숙 집사(충성 6구역)



당신에게!

당신에게 초대장을 살짝 건네던 날

그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신의 눈빛 하나에도

당신의 몸짓 하나에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떠한 계기로든 당신께 고백하고 싶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용기내어 몇 자 적습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

그 만남으로 엮어진 씨실과 날실의 베들,

그 속에는 함께 기뻐하며 웃었던 기억도

함께 좌절해야 했던 우울한 기억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 이뻐던 기억들도

당신 홀로 애쓰며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삐죽이 나온 실터럭이

누구의 탓인지 그냥 모르는채

당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했던 제가

절대자의 말씀 속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당신에게 나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당신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함께 인생의 베들을 짜야 했고

저는 돕는 배필 에젤로서 당신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조화로움에서

절대자의 창조는 아름다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그 분의 바람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짝으로 하시어

하나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내 욕심과 두려움의 성 안에 갇혀서

나 자신만을 세우기도 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며

스스로 상처를 주는 못난 아내였고

미움과 노여움의 성안에 갇혀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허둥대며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수고하심이 참으로 크셨습니다.

얼마전 당신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고는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소중하기에

당신을 기다리시는 그 분께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남은 시간들을

당신과 함께 그 분의 품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진정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

제 부족함이 끝없지만

당신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집안의 며느리로서

또 다른 이들의 이웃으로서

필요한 말 알맞게 하여 마음 거북하지 않게 하고

필요한 것 알맞게 나누어 서로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작아지며 섬기는 마음, 지키려 애쓰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지요.

죽은 듯이 보이던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알에서 깨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늘 푸른 나무처럼

언제나 내 곁에서 그늘을 주는 당신!

당신은 언제나 내게 큰 나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 당신

당신이 주님의 큰 사랑 넘치게 받기를 소망하면서...

당신의 아내가 사순절에 보냅니다.

주) 이 글은 지난 3월 23일 충성교구 주회 '남편 초청의 밤' 모임에서 발표한 글입니다.